주요어 : 세계화, 지방화, 경제공간조직, 산업구조재편, 네트워크 전략

1. 서론

1990년대에 들어서 ‘세계화’라는 용어는 학계와 언론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용어중 하나이다. 세계화에 대한 개념이 말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 차이를 보이지만 이세계화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현혹한 단어가 되었다. 세계화는 용어와 더불어 우리 경제사회학자들에게 편의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바로 세계경제공간조직의 변화이다.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고, 유럽의 통합과 북미자유무역지역이 출범하는 공식적인 정치경제공간조직의 재편이외에도 수 많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며 세계의 경제활동공간은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사실이다. 더욱이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심화되고, EU, NAFTA 등 세계주요지역의 경제발전화가 이루어지는데 가운데 산업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어야 하므로 세계경제공간에 더욱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산업의 국제화, 세계화가 산업의 지방화 및 전문화와 병행해서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며 세계경제공간 조직은 산업공간의 등장과 발달로 가시화되는 가운데 변화되고 있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대평양 연안지역의 경제공간은 산업의 국제화의 세대에서 최근 들어서 규모로 있다. 대평양 연안지역 중 아시아 대평양지역에는 지역내 국가간 경제협력과의 급격한 증가, 전략 산업지역과 국가 간 경제공간지역의 출현 등이 경제활동의 공간적 구조변화에서 두드러진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미 대평양 연안지역에서는 다양한 기업간 관계와 함께 산업의 지배와 세계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대평양지역에서는 기업간 관계와 아 직 산업의 지배와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산업공간조직의 변화에서 점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2. 경제의 세계화와 지배화

오늘날 세계경제는 정보화의 진전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른 각국경제의 개방화의 추진으로 경제의 통합화와 세계주요지역의 경제블록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탈냉전시대 이후 세계시장에서 경쟁의 심화와 경제의 개방화에 따른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은 국경을 초월한 생산활동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세계경제의 지리적 확대에 제약요소를 외쳐하지 못하고 단일 시장으로 통합됨으로써 지급하는 전형 다른 세계경제공간이 형성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통합추전은 생산요소, 자본, 서비스, 기업 등의 국제적 이동성을 급격히 높여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개방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같이 탈냉전시대 이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나타나는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의 전개와 관련하여 '국제화'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개념은 서술적 것과 전략적 것의 두가지로 쓰이면서 비약적 두가지로 쓰이지 않고 있다. 즉, '국제화'는 세계경제의 단일 시장체제로 이행, 정보통신을 통한 자구촉화, 탈국경 경제구조의 전환 등과 같은 시대 변화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서술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한편, 국제화를 이와같은 시대변화에 동등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개념으로도 쓰여져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화'는 국제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략적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응전략으로서의 국제화를 최송화(1994)는 "한나라의 경제·사회가 세계경제의 한부분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사회의 모든 점에서 제도, 경쟁, 관행을 합리화시켜 이른바 보편적 기준에 맞게 자여바나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는 경제·사회활동의 무대가 한나라에 국
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반을 갖추어, 기업운영, 행정체제, 국민의식,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바라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호, 주성재, 1994).

국제화에 대한 이와같은 사슬적개념과 전략적개념은 최근 들어서 널리 쓰이고 있는 '세계화'의 개념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현재 경제의 '세계화(internationalization)'는 국경을 넘어서 경제활동이 지배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는 국제적으로 확산된 경제활동의 가능적인 통합과 조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Gereffi, 1997). 이와같이 국제화와 세계화를 구분할 경우, 국제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이미 17세기부터 나타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세계화는 보다 최근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무역과 해외제조투자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세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고 밝힌 경제사학자 Hirst(1997)의 주장은 바로 국제화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세계화를 국제화와 구분하여 정의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에 주장된 세계화의 개념을 정리하면 대체로 4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Hudson, 1997). 첫째로 세계경제의 흐름이 외계에 비하여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즉, 국가의 통제에 의하여 국가경제사회의 연계에 의하여 국제화되고 있음 뿐, 세계경제에 근거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 의하면 국가의 통제적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세계화의 개념은 옳지 않은 것이다(Hirst and Thompson, 1996; Hirst, 1997). 여기서는 경제의 조직과 조정에서 정상적인 불안정성보다는 정량적인 인속성이 강조되고 있다. 두번째로 전화는 첫번째의 것에 정반대되는 것으로, 초국적 자본이 지구상에 이동하는 것을 찾아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세계경제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4가지 전화중 첫번째는 두번째는 너무 극단적인 경우이고 세번째와 네번째를 종합한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Hudson, 1997). 즉, 세계화는 영역과 영역사이에 상호의존과 연결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EU
나 NAFTA같은 경제블록의 형성, 지방자치의 실현, 시민사회에서 각 조직의 역할강화 등으로 인해 국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국가역할이 약화되어 세계화의 화합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과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유지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지방수준의 변화와 세계적 차원에서의 변화는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화의 영향은 국가와 국가사이에서 다른 국가내의 지방간에도 매우 불균형적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이 국가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할 때, 세계화를 세계경제와문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앞의 국제화 개념에서 발전 바와 같이 국가 정책이나 지역정책의 전략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 차원과 지방수준의 상호관계에서 세계화의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다는 사실은 바로 세계화과정에서 지방의 특성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여기서 지방의 특성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특성도 포함한다. 지방의 특성은 여러면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경제의 세계화에 초점 을 맞춘다면 기업간 네트워크가 기준으로 하여 지방의 특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Park, 1996). 세계화 지방의 특성과 연결할 때, 경제의 지방화와 세계화를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산업이 지방에 집적하여 산업의 지방화가 이루어질 때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형성되고, 이는 지역체제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의 지방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나, 외국기업의 투자가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그 지역에서 산업네트워크가 형성될 경우가 흔한 것은 바로 경제의 세계화와 지방화가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의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수가 있다(박상욱, 1996; Park, 1996; Hudson, 1997). 최근에 일본이나 한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지 투자지역의 기업과 생산연계를 강화하고 세계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에서 비판측도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globalization'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적절한 예라 볼 수 있다.

3. 태평양 인근지역의 경제공간조직 변화


1)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1980년대 초 이후 세계경제의 무패증상이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지난 10여년동안 세계무역에서 태평양인근지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태평양인근지역내의 역내 무역이 급증하였음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Alvstam, 1995; Garnaut &
Drysdale, 1994), 북미지역, 서부유럽, 일본의 세계 3대 경제중심지의 수출입자료를 보면 각 지역에서 역내고객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지역기구 모두 아시아와의 교역이 증가하였다(표 1).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이후 더욱 현저하다. 아시아지역중에서도 한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일랜드 등 6개국이 3대 경제중심지와의 교역증가에 특히 공헌하였다.

<table>
<thead>
<tr>
<th>Export to :</th>
<th>North America</th>
<th>Western Europe</th>
<th>Japan</th>
</tr>
</thead>
<tbody>
<tr>
<td>Asia</td>
<td>20.2</td>
<td>21.7</td>
<td>25.1</td>
</tr>
<tr>
<td></td>
<td>10.3</td>
<td>9.0</td>
<td>8.9</td>
</tr>
<tr>
<td>China</td>
<td>1.0</td>
<td>1.2</td>
<td>1.7</td>
</tr>
<tr>
<td>Six East Asian traders</td>
<td>4.4</td>
<td>7.2</td>
<td>10.8</td>
</tr>
<tr>
<td>North America</td>
<td>34.2</td>
<td>34.6</td>
<td>35.7</td>
</tr>
<tr>
<td>Latin America</td>
<td>10.8</td>
<td>10.0</td>
<td>13.2</td>
</tr>
<tr>
<td>Mexico</td>
<td>3.1</td>
<td>3.4</td>
<td>6.9</td>
</tr>
<tr>
<td>Western Europe</td>
<td>25.3</td>
<td>21.9</td>
<td>20.2</td>
</tr>
<tr>
<td>European Union</td>
<td>22.3</td>
<td>18.0</td>
<td>17.3</td>
</tr>
<tr>
<td>Middle East</td>
<td>2.4</td>
<td>4.6</td>
<td>2.9</td>
</tr>
<tr>
<td>Africa</td>
<td>2.5</td>
<td>3.1</td>
<td>1.7</td>
</tr>
<tr>
<td>C/E Europe and the f. USSR</td>
<td>2.2</td>
<td>1.6</td>
<td>1.1</td>
</tr>
</tbody>
</table>

| World       | 100.0         | 100.0          | 100.0 |

<table>
<thead>
<tr>
<th>Import from :</th>
<th>North America</th>
<th>Western Europe</th>
<th>Japan</th>
</tr>
</thead>
<tbody>
<tr>
<td>Asia</td>
<td>21.7</td>
<td>30.2</td>
<td>37.5</td>
</tr>
<tr>
<td>Japan</td>
<td>11.4</td>
<td>14.2</td>
<td>16.2</td>
</tr>
<tr>
<td>China</td>
<td>0.1</td>
<td>0.8</td>
<td>4.9</td>
</tr>
<tr>
<td>Six East Asian traders</td>
<td>6.1</td>
<td>10.6</td>
<td>12.7</td>
</tr>
<tr>
<td>North America</td>
<td>36.6</td>
<td>29.1</td>
<td>27.5</td>
</tr>
<tr>
<td>Latin America</td>
<td>11.4</td>
<td>14.0</td>
<td>11.3</td>
</tr>
<tr>
<td>Mexico</td>
<td>2.6</td>
<td>5.4</td>
<td>5.9</td>
</tr>
<tr>
<td>Western Europe</td>
<td>23.9</td>
<td>18.9</td>
<td>18.2</td>
</tr>
<tr>
<td>European Union</td>
<td>20.6</td>
<td>16.0</td>
<td>15.4</td>
</tr>
<tr>
<td>Middle East</td>
<td>2.1</td>
<td>2.5</td>
<td>2.4</td>
</tr>
<tr>
<td>Africa</td>
<td>3.6</td>
<td>4.8</td>
<td>2.3</td>
</tr>
<tr>
<td>C/E Europe and the f. USSR</td>
<td>0.7</td>
<td>0.5</td>
<td>0.8</td>
</tr>
</tbody>
</table>

| World        | 100.0         | 100.0          | 100.0 |

Note : 1) Chinese Taipei, Hong Kong, Malaysia, the Republic of Korea, Singapore and Thailand.
한국과 일본, 홍콩과 중국 등 많은 국가 사이의 교역이 증가한 것으로 중요한 특성중 하나이다. 보 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지역 내 교역의 증가는 아시아 지역과 러시아의 거래지역에서 보다 더 현저하다. 아시아와 러시아의 교역은 1990년대에 들어서 지역 내 교역비중이 상당히 증가한 반면, 아시아와 유럽의 교역 비중은 모두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2).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중국, 홍콩, 대만, 한국 등의 국제무역이 급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들 상호간의 교역증가가 바로 아시아지역에서의 역 내교역비중을 증가시키는데 공헌하였다 (Alvstam, 1995).

태평양 연안지역에서 해외직접투자 확대도 많 이 변화하였다. 전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일본 이 해외직접투자 주도국이었으나, 최근 들어서 아시 아 삼국공업에 대한 중국과 동남아지역의 해외투자 를 주도하고 있다 (표 3).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해외투자를 하는 주요 투자국의 비중을 보면 아시아 삼국공업이 그 비중이 1980년대 후반에 증가하고, 그 이후에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에서 1980년대 후반에 중국이 행한 해외직 접투자 총액에서 아시아 삼국공업국들의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들었지만 그래도 50%보다 넘 고 있어서, 아시아 삼국공업국들이 여전히 중국투자 를 주도하고 있다. 더욱이 1992년 이후 한국의 대 중국투자가 급증한 사실을 고려하면 대중국투자에서 아시아 삼국공업국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1997).


### 표 2. 아시아와 러시아의 주요지역에 대한 상품수출, 1990-1993 (%)

<table>
<thead>
<tr>
<th></th>
<th>Asia</th>
<th>Latin America</th>
</tr>
</thead>
<tbody>
<tr>
<td>Export to</td>
<td>1990</td>
<td>1993</td>
</tr>
<tr>
<td>Asia</td>
<td>42.4</td>
<td>46.5</td>
</tr>
<tr>
<td>North America</td>
<td>28.1</td>
<td>26.4</td>
</tr>
<tr>
<td>Latin America</td>
<td>1.8</td>
<td>2.6</td>
</tr>
<tr>
<td>Western Europe</td>
<td>20.0</td>
<td>17.6</td>
</tr>
<tr>
<td>Middle East</td>
<td>2.8</td>
<td>3.1</td>
</tr>
<tr>
<td>Africa</td>
<td>1.5</td>
<td>1.4</td>
</tr>
<tr>
<td>C/E Europe and the f. USSR</td>
<td>1.7</td>
<td>1.1</td>
</tr>
<tr>
<td>Inter-regional trade</td>
<td>57.6</td>
<td>53.5</td>
</tr>
<tr>
<td>World</td>
<td>100.0</td>
<td>100.0</td>
</tr>
</tbody>
</table>


2) 산업지구와 지역경제지대

1980년대 이후로 환태평양 공간경제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산업지구와 지역경제지대(성장심각지대)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환태평양 서부와 동부지역에서는 지급까지 산업지구가 생성 되어었으며, 아직도 진행중이다. 동부지역에서는 첨

### 표 3. 일본, 아시아산공업지역, 미국, 세계경제로부터 내 ASEAN국가들과 대중국 해외투자, 1987-1990

<table>
<thead>
<tr>
<th></th>
<th>Japan</th>
<th>NIEs</th>
<th>United States</th>
<th>World</th>
</tr>
</thead>
<tbody>
<tr>
<td></td>
<td>Millions of US dollars</td>
<td>Share of world total</td>
<td>Millions of US dollars</td>
<td>Share of world total</td>
</tr>
<tr>
<td>Malaysia</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987</td>
<td>284</td>
<td>34.7</td>
<td>236</td>
<td>28.9</td>
</tr>
<tr>
<td>1988</td>
<td>467</td>
<td>26.1</td>
<td>607</td>
<td>32.6</td>
</tr>
<tr>
<td>1989</td>
<td>993</td>
<td>31.1</td>
<td>1 335</td>
<td>41.8</td>
</tr>
<tr>
<td>1990</td>
<td>657</td>
<td>26.5</td>
<td>1 100</td>
<td>47.8</td>
</tr>
<tr>
<td>Thailan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987</td>
<td>965</td>
<td>36.6</td>
<td>501</td>
<td>19.0</td>
</tr>
<tr>
<td>1988</td>
<td>3 045</td>
<td>48.7</td>
<td>1 684</td>
<td>26.9</td>
</tr>
<tr>
<td>1989</td>
<td>3 524</td>
<td>44.1</td>
<td>2 011</td>
<td>25.2</td>
</tr>
<tr>
<td>1990</td>
<td>2 706</td>
<td>33.7</td>
<td>2 696</td>
<td>33.6</td>
</tr>
<tr>
<td>Philippines</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987</td>
<td>29</td>
<td>17.4</td>
<td>38</td>
<td>22.8</td>
</tr>
<tr>
<td>1988</td>
<td>96</td>
<td>20.3</td>
<td>141</td>
<td>29.8</td>
</tr>
<tr>
<td>1989</td>
<td>158</td>
<td>19.7</td>
<td>323</td>
<td>40.2</td>
</tr>
<tr>
<td>1990</td>
<td>306</td>
<td>31.8</td>
<td>384</td>
<td>39.9</td>
</tr>
<tr>
<td>Indonesia</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987</td>
<td>532</td>
<td>36.5</td>
<td>172</td>
<td>11.8</td>
</tr>
<tr>
<td>1988</td>
<td>247</td>
<td>5.6</td>
<td>1 588</td>
<td>36.0</td>
</tr>
<tr>
<td>1989</td>
<td>769</td>
<td>16.3</td>
<td>1 197</td>
<td>25.4</td>
</tr>
<tr>
<td>1990</td>
<td>2 241</td>
<td>25.6</td>
<td>2 588</td>
<td>29.7</td>
</tr>
<tr>
<td>China</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987</td>
<td>220</td>
<td>9.5</td>
<td>1 620</td>
<td>70.0</td>
</tr>
<tr>
<td>1988</td>
<td>515</td>
<td>16.1</td>
<td>2 123</td>
<td>66.5</td>
</tr>
<tr>
<td>1989</td>
<td>356</td>
<td>10.5</td>
<td>2 182</td>
<td>63.7</td>
</tr>
<tr>
<td>1990</td>
<td>503</td>
<td>14.4</td>
<td>1 963</td>
<td>56.3</td>
</tr>
</tbody>
</table>

**Note:** For Malaysia and Indonesia, approval data for manufacturing; for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approval data for the whole sector; for China, executed data

**Source:** Garnaut and Dravdale, 1994, p.277
락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증명해야 한다(Markusen, 1996; Park, 1996).

환태평양 서부지역의 산업공간 발전에 있어 지역적으로 무드러진 현상이 지역경제지역(Regional Economic Zone) 또는 성장상각지대(Growth Triangle Zone)이다(van Grunsven et al., 1995). 이시아 개발은행은 성장상각지대 또는 하위지역경제지대로도 불리는 지역경제지역이 상이 한 사회적, 경제적 체계에서 경제발전수준이 다른 국가들의 지역적 통합과 협력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이시아지역의 특징한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Thant et al., 1994). 지역경제지역은 경제단면 이기 보다는 수출지형적인 성격을 따르며, 수출에 있어 경제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지역 구성원간의 경제적 보완성과 지리적 근접 성은 상공적인 지역경제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한 조 건이다. 거래비용을 줄이고 문화적, 언어적 유사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근접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적절한 하부구조의 형성 또한 지역경제지역의 형성을 위해 중요하다.

홍콩, 대만, 중국의 남부지역으로 구성되는 남부 중국 지역경제지역시 상대적으로 빠른 발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지역은 전 세계적으로도 주요 지역경제지역으로 성장했다. 이 2개의 경제지역 외에 4개의 경제지구가 제각종이거나, 제한단계에 있다. 그들은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와 관련된 두 단장 산각주 프로젝트: 태안부, 발레마야와 북부, 남아시아 서부지역이 관련된 북부 성장상각지 대: 중국 북부, 남아시아, 일본이 관련된 북부 경제지역이며, 일본, 동남아시아, 중국 북동부, 남아시아가 관련된 동남아지역의 경제지역(Chia & Lee 1993).

이와 같은 발전한 2개의 지역경제지역은 "아시아 산업공업지역에서 그동안 수출지형적 산업을 주도 하는 산업지역과 인해에 있으며, 최근 실질적인 외 조업 정책을 보이는 정책지역"(van Grunsven et al., 1995, p.151) 지역경제지 역의 출현은 중국 경제의 해외직접투자와 발달한 관련이 있다. 홍콩과 대만으로부터의 상당한 양의 해외직접투자가 중국 남부 지역경제지역의 성장을 주도했다(Chen, 1994; Chen & Ho, 1994). 예를 들어, 홍콩은 실전지역 해외직접투자 비율 54%를 차지했다(Thanh et al., 1994). 중국의 개방 정책과 인연은 경제정책의 자유화, 중국정부와 산간 위 지방정부의 유연적인 투자유인정책, 생산비용의 차별성(특히 노동비용), 기술과 문화유산, 지리적 근접성 등이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주요 요소였다.

SIJORI 지역경제지역은 정부의 주도로 형성되었 다. 조후르-상가품 지역의 범위는 처음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상가품지역"의 형성은 당시 상가품 부수당적이었던 "고착정"에 의해 1989년에 제안되어 지역경제지역 발전을 촉진시켰다(Kumar, 1994; Granaut & Drysdale, 1994). 1980년대 이로 하여 상가품의 급속한 지가가 급격히 상승의 압력은 기존 보완성을 유지해 오던 3지역간의 경제 협력을 촉진시키는 촉진기제가 되었다. 조후르와 라이 우지역에는 특히 상가품료로부터의 급속한 해외직접투자가 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다(Kumar, 1994). 바람직한 대의 해외직접투자 중 상가품의 비중은 50%가 넘는데(Thanh et al., 1994). 조후르와 라이우지역의 급속한 산업성장은 최근 이 지역들을 산업중심지와 관광명소로 발전시켰으며,
이는 확실히 지역경제지역의 경제협력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경제지역은 제안단계가거나 계획의 초기단계에 있다. 발해지역에서의 복구 성장심각지역 개발계획의 발대자녀 북사부, 태국 남부, 인도네시아 서부의 인접지역들을 물리싸고 있는데, 레간구조, 자연자원, 산업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무한지역 경제지역 개발계획(TREBEZ)은 UNDP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상호보완과 경제력개발의 의미가 담겨있지만, 계획이 진행되기 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4. 세계 경제공동조직 변화의 주요 과정

지금까지 개발적으로 살펴본 평방형 연안지역의 경제공동조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계경제와 공산화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한 요인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세계경제공동조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정이나 요인을 정리하고자 한다. 필자는 핵심적인 변화과정이나 변화의 원로 보고자 하는 것은 1) 공산공원과 상품체제, 2) 산업구조체제, 3) 생산조직과 산업네트워크이다. 이들 세 가지 과정이나 관련 이론이 오늘 날 경제의 세계화와 지방화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들이 세계공간조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또 이들은 비타작라리가 보다는 상호 관계에 있음을 지적해본다.

1) 공산공원과 상품체제


제조공공주식의 이론은 국제간의 직접투자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국의 경제공간에서 주변지역에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분공장이 확산됨에

최근들어서 산업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상품체 인의 발달은 산업분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 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활동의 국제적인 연계성이 생산자주도(producer-driven)체인과 구매자주 도(buyer-driven)체인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산업발달이 이루어지고 이들은 지역적으로 차별화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Gereffi, 1997; Gereffi and Korzeniewicz, 1994). 생산자주도의 상품 체인에서는 생산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조정하는데 거 대한 다국적기업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 생산자주도 의 상품체인은 자동차, 항공, 컴퓨터, 반도체 등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특성이다. 구매자주도의 상품체인은 대규모 소매업체, 디자이나 및 무역회사가 여러지역(특히 제3세계)에 분산된 생산연계망을 형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을 나타낸다. 이와같은 구매주도의 산업화 패턴은 노동집약적이고 소비재중심인 의류, 신발, 장난감, 가정용품, 소비 재 전자제품에서 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생산은 중화된 네트워크에 의해 제3세계 제작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제품의 명세서는 제품을 주문하는 대 규모 소매업체나 디자이나에 의해서 공급된다(Gereffi, 1997). Wal-Mart, Sears Roebuck, 및 J. C. Penny와 같은 대규모 소매업체, Nike 와 Reebok같은 신발회사, Liz Claiborne같은 패션위주업 등은 구매자주도의 상품체인 모형에 들어가는 기업들인데, 이들은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디자이나하고 판매하는데,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닌 생산을 주문한 뒤이다.

이러한 상품체인에 의해서 공장분업이 이루어지는 예를 서아시아지역에서 볼 경우, 일본은 생산자주 도 상품체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국은 구매자주도체인을 위한 생산중심지를 차지하며, 아시아 신 경공업경제들은 두가지 형태 모두에서 중간적인 역 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 신경공업경제들은 구매자주도체인에서는 중간제의 생산자나 정보로 기의 역할을 하고 또한 생산자주도체인에서는 여러 가지 원료와 자원품의 직접 제조자로의 역
할을 하여 두가지 형태의 상품제작에서 중간상품을 수령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주도체의 측면에서는 제조업자가 향공기, 자동차, 컴퓨터 등의 고치적인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들은 원료와 부품공급, 자원의 투입과 판매의 전량의 제조를 통제하는 핵심적인 경제주체로서 세계적인 과정적 다국적기업들이다. 반면에 구매주도의 상품제작은 매우 경쟁적인 시장과 세계적으로 분산된 생산체제로 특징지게된다.

브랜드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들은 생산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상당히 통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생산자주도의 상품제작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제조업에 의해서 통제되지만, 구매주도의 생산으로 주요 원료는 마케팅이 제작의 소매에서 소매자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인에 의해서 형식된다(Gereffi, 1996: 1997). 일반적으로, 생산자주도체에서 완제품은 핵심국가의 다국적기업에 의해 공급되지만, 구매주도체에서 완제품은 갤로의 지배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투자를 기반으로 한 수직적 연계망을 조성하면서, 구매주도체의 소매업자, 디자이너, 무역상사들은 고유에 기반을 두고 수직적 연계망을 형성하고 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제작은 최근들에게 매우 복잡화되고 다양화됨은 물론 시장의 투명성이 흐르기 때문에 상품제작에 의한 공간의 광범위한 파괴로 인해 상업적의 핵심공급체제에 의한 공간 분업이 고가처럼 핵심국가와 주변국가 또는 반주변국가로 정교하게 구분하여 나타나기보다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Hayter, 1997).

2) 산업구조개편


장에 큰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이 강화되었
으며 기술집약적 산업의 성장도 크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1980년대까지 한국의 산업구조는 주로
정부의 주도적인 산업정책에 의해서 변화되었으나
해도 큰 부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이
후퇴하는 기업의 전략과 정책도 정부의 역할뿐만
계한 한국 산업변화에 중요하게 되었다. 즉, 이에
업에 의한 산업구조재편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산업, 영업, 산업
업동은 그 성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수출도 감소
하게 되었다. 한국의 초기산업화 과정에서 산업구조
향로 부담, 근거, 고압기의 취약한 재무구조, 그리고 생산적
적용과 생산현장에서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이들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1980년대 말기에 한국 산업의 구조재
편을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산업이 구조재편과정에
들어간 것은 과거의 한국 산업구조 변화과정이라는
여 며에서 다르다. 1980년대 중반까지의 산업구조
변화는 공정공정의 경제개혁과 공공정책에
따라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후
반 이후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과 관련한 경제정책의
변화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구조재편을 성
공적으로 이루려는 기회가 없게 되었다. 기업들이 절약한 국
제정책양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재무의 계약적인 재편없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산업구조변화는 용이한 가속이었고,
값싼 임금 등으로 상대적인 가격경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점은 활용하여 산업구조 변화 정책
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오늘날은 상황
이 달라졌다. 위에서 밝힌 국내외의 복잡한 여
건변화의에도 오늘날 소비시장이 다양해졌으며 산업
기술이 급격히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된 전시
에서 정부의 정책으로는 시의적절하게 변화하고 불
확실성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재편과정에서 기업의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재편을 위한 기업의 전략은
강력한 기업의 경제체를 추구하는 전략
에서부터 생산의 일부 단계나 기능을 외부화
시키는 전략에 이르기로 변동이 필요하다.
제품구조의 전략에서부터 핵심기구를 추구하는 전략,
기술 및 제품의 장점과 성과를 활용하고 변환
시키는 전략, 그에 따른 기업의 브랜드, 유
연성, 유연성의 활용, 내부조직의 유연화 등 유연적 전
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Toddling, 1994). 한국
기업들이 1980년대 후반에 산업구조재편을 위
해 취한 전략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세가지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980년대 말기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는 기
간에 한국의 기업 전략 및 도덕전략에 해당하는 기
업들은 산업구조재편을 위해 노동, 생산조건, 임직
장 및 기술과 관련한 전략을 취했음을 기업설문
조사에서 밝힐 수 있었다(Park, 1995). 그의, 노
등전략에서 부각되는 것은 유연성과 인력유지전략이
가. 생산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용이치 않은 상황에
서 한국기업들은 과거보다 높은 비용의 시기에 또는
입시적 인력과 외국인 생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
산인력활용의 수용적인 유연성과 재정적인 유연성을
높이려 하였다. 또한 기존인력의 유지를 위해서 여
라가지 인력유지방안을 강구하는 등에서 중요기
임들이 전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해주는 일이나 대기
업이 전보다 인력의 훈련 및 재훈련을 강화하는 것
들이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된다.

둘째, 생산주제와 관련한 전략으로 중요하게 부
각되는 것은 향후전략이다. 기업들이 생산과정의 일
부나 직업생산을 하면서 의존하는 것은 비용을 점감
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유연성을 높이기 위
해이다. 많은 기업들이 생산시설의 부족, 행정 및
관리비용의 점감, 인건비의 점감 등을 하청의 주요
요인으로 봐두고 있는데서 하청이 비용절감전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들이 하청에 의존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이는 수도권의 산업집적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
즉, 기업의 산업전략을 위한 하청전략은 산업의 지
방화를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임직원 관련하여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전략이다.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기
업들의 해외투자활동은 증가하였다. 아직 한국기업
들의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다른 아시아 산업국
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1990
년대에 들어서 해외직접투자를 행하였다. 1990년
대 초를 기준으로 기존의 해외투자기업중 60% 이
상이. 그리고 앞으로 3년이내 해외투자를 계획하
고 있는 기업중 90% 이상이 인건비 점감을 해외투
자의 주요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어서 최근 한국 기업
의 해외투자는 비용절감전략의 일환으로 할 수 있겠
다. 이때부터 지속적인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중
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해외투자지역으로
부상하였다.

넷째, 기술전략이 중요한 기업전략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년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산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도입
하지만 상당한 비용의 기업들이 품질관리 및 디자인
에 관한 기술도 신기술로 도입하고 있다. 도입된 신
기술중 약 1/3정도는 기업자체가 개발한 것이어서
기업들의 기술개발활동도 최근들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신기술도입의 주요
목적은 제품의 점 향상, 생산의 증대, 신제품 생산
의 손으로 나타나서, 기술도입은 비용절감의 전략이
아니라 생산성과 제품의 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기업의 기술전략을 비용절
감을 중요하게 여겼던 노동, 하청, 해외투자전략들
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기업들이 생각하기 위한 산업재
판전략은 물론 기업의 규모, 업종, 기업의 입지지역
에 따라 달리 나타난을 볼 때 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1980년대 후반이후의
국내외로의 양극화에 적응하기 위한 재판전략은 비용절감전략
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이 주어졌다. 산업구조재편과
정에서는 기술혁신과 유연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나타
나고 있음을 사실이나 산업재편에 비하면 이들 전
략을 중시하는 정도나 전략의 다각성이 약하다.

다른 아시아 산업국경제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산업재편과정을 보였으며, 이러한 산업재편의 과정
에서 해외직접투자자에 급증하였다(Park and Kim,
1994). 앞에서 발전 흐름의 광동생산투자, 싱가포르
의 SORI생산망경제 투자, 한국의 산동생산투자
등과 바로 산업재편의 한전략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서 기업의 산업재편전략이 점차의 세계화
가 지방화에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3) 생산주제와 산업네트워크
1970년대 이후 산업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
지하거나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한 중요한 전략중의
하나는 생산조직을 보다 유연한 체계로 재편해온 것이다.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용감량을 추진하는 것이나 기업내에서 생산하던 것을 외부회사에 의존하는 것이 모두 생산조직이나 생산체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존의 생산체계에서 새로운 고용관계를 형성하거나 신규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생산과정을 조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업들은 경영력을 제고시켜하였다. 경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생산조직의 재편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해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간 산업네트워크는 1980년대 이후 경제공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980년대 말이어서 활발하게 전개된 산업지구나 생산조직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간의 생산네트워크의 발달이다. 기업간 산업네트워크는 유연적 전문화에서 기업간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가 아니라 대 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간 관계는 국지지역이나 중소기업의 관계만이 아니라 국지지역의 범위를 넘어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산업네트워크는 공급망이나 고객망과는 물론 경쟁망과도 이루어지며 산업협력, 중앙정부와 자방정부, 대학들의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산업네트워크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도시화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는 원칙상 산업지구에 있 는 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유형을 도식화하였 다. 산업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공급망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고, 공급망에게 기술정보나 인력을 제공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상호 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또한 고객기업에게 물자를 제공하고, 정보, 인력, 금융에서 상호에게를 빌어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산업지구의 기업들은 상호이 경쟁기업과도 전략적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기술 개발, 시장확장, 제품생산 등 여러분야에서 전략적 인 협력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 다나아가서 산업지구의 기업들은 정부, 산업협회, 대학들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연구를 하거나, 인력훈련과 교육, 시장 및 기술정보 등의 서비
신산업지구의 네트워크

생산자, 무역협회와 기타 기구

국가적 공급자/고객 네트워크 : 물자, 정보, 금융, 노동
국가적 공급자/고객 네트워크 : 물자, 정보, 금융, 노동
세계적 공급자/고객 네트워크 : 물자, 정보, 금융, 노동
경영자와의 관계 : 전략적 지속, 경쟁, 협력
정부, 무역협회, 기타 기구와의 관계 : 사업 서비스; 인력양성; 교육; R&D, 네트워크 개발, 등등

G=공급자, C=고객; CP=경영자; T=정부, 무역협회, 기타 기구
L=국가적 네트워크; N=국가적 네트워크; G=세계적 네트워크; NID=신산업지구

그림 1. 신산업 지구의 네트워크
스를 공급받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의 기업간 네트워크는 각각 국가적, 국가적, 세계적인 차원 등 여러 공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경제활동공간을 조정하게 된다. 국지적인 차원에서 기업간 네트워크가 밀집될 경우 산업의 지방화(localization)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중소기업들이 집적하여 다양한 내용의 국지적 네트워크가 밀집될 경우 소위 마갈형산업구역이 발달될 수 있다. 만약 특정지역에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대규모의 기업이 있고 이 대기업에 불지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기업이 수많이 집적해 있을 경우는 허브와 스포크형(Hub and Spoke Type) 산업구역이 발달되고 있다. 네트워크의 공간적인 유형에 따라서, 위성형(Satellite Type) 산업구역이나 산업의 존재하는 산업구역이 발달할 수 있는 데 이들은 공식적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대에 경제의 세계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바람목, 1994). 예를 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국가적 네트워크는 물론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강하게 밀집되어서 산업의 세계화와 국지화가 강하게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업적 첨단산업구역이라고 중문 섬진의 경제특구는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세계화 네트워크가 발달한 위성형 산업구역이다.


이와같이 한국기업의 채택에 보이는 비와같이 세계
적한 다국적기업들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신입의 지방화를 촉진하여 세계경제공간을 조직해나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본의 다국적기업이나 최근의 한국국내기업들은 해외에 공장을 건설함에 투자지역에 공급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거나 하청업체의 동반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의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경우가 종종되어 이를 '글로컬화(globalization)'이라고 한다(Hudson, 1997).

일본이나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이러한 산업네트워크는 투자국 현지에 생산직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세계경제공간을 조직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생산연계를 맺고 있어서 오늘날 세계경제공간이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유연적전문화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유연적 전략에 의한 거대기업부문의 공간조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할 수 있다(Harrison, 1994).

5. 세계화/지방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공간분업과 상품메니, 기업의 산업구조와전략, 생산직의 변화와 산업네트워크 등에 의해 경제의 세계화와 지방화가 진행되었다. 경제의 세계화와 지방화는 동반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글로컬화'라는 새로운 단어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결국 유연성이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다. 대립방 역량지역은 지난 20여년 동안 이러한 경제의 세계화와 지방화로 광범한 산업변천을 경험하였고 경제공간전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을 강조한 변화는 급격적인 효과가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대립방 연합지역내의 급격한 산업변천과 국가조직을 초래한 지역경제지대의 확대는 환경의 오염과 환태화, 농공정제의 문제, 지역 불균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같은 심각한 지역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을 간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대야강서정상의 역동적인 변화와 더불어 더욱 심각하게 부각될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세계경제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란의 전략에서 편익적인 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협력적인 네트워크 전략'이란 현대적으로는 기업간, 기업간, 산업단계간, 정부간의 협력이 이루어져, 다른 현대직으로는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져도록 부문과 공간적 차원에서 산업, 정보, 기술과 각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전략이다(Park, 1997). 단지적으로 전반에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공간을 조작하는 것이 바로 협력적인 전략의 주 목적이며, 따라서, 협력적인 네트워크전략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과 공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할 수 있으며, 환경관리와 보건을 위한 상호 협력과 기술개발이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 협력적인 네트워크는 먼저 지역수준에서의 거래, 교통, 매출비용 등을 통해 산업의 지방화를 유도하게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또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협력네트워크전략은 지역간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의 적절한 활용, 인력교육과 개발, 신기술의 이전, 신기술제제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수준향상, 적정 기술의 개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 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재판매 등도 용이하게 할 것이다.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의 초기 단계는 대기업-소기업 간 협력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공급업체간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업체조직의 협력네트워크 초기 단계의 예가 될 것이다(Choo, 1993: 박삼옥, 1996). 이러한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 조직은 산업의 지방화 뿐 아니라 세계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후에,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는 환역평양 동부의 핵산 산업지역에서 보여지는 소기업간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간 활동은 환경기술 개발, 환경기술방, 자금조달, 노동력 훈련 등에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여가에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몇가지 필요조건이 있다. 1) 상호신뢰의 토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2) 네트워크는 지역내에 뿌리있는 지역이나 국경의 범위를 넘어서도 전달되어 잘 수 있다. 3) 관련제도를 포함하여 기업간 관계는 확장될 수 있다.

지방자치의 협력 네트워크는 지역과 세계적인 네트워크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다. 창조적인 도시구 집으로 제시된 바 있는 네트워크 도시들은 지역과 세계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 (Batten, 1995). 자원, 자본, 기술, 노동력, 소상공인의 상호보완적인 협력 네트워크는 지역화 또는 지역 산업공간으로 귀결된다. 지역 네트워크는 지역내 도시들을 상호연결하는데, 빅토는 기업내 관계, 기업간 협력, 정부간 협력과 제도간 협력을 통하여 2개 이상의 나라에서 국경을 넘어서 소단위 지역들로 구성되기도 한다. 지역 협력제약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적절한 환경기술의 소개, 환경관리를 위한 정보교환, 기업간의 협력, 산업기회 활용의 용이성, 기업내, 기업간, 정부간 협력 관계에 의한 생산자 서비스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특히 협력네트워크는 산업화와 환경개의 협력관계로 발전하도록 상호 대화와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

지역자치의 네트워크는 지역내에서 다양한 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중요하게 하고, 지속적인 지역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산업단 네트워크, 지방정부간의 협동, 국외협력들이 지역네트워크와 지속적인 지역산업공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환경관계의 정립을 위한 협력, 인적자원의 개발, 공공 구조와의 투자, 기술, 친환경의 전파 등이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확장될 수 있다. 특허 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협의구를 조직하고 산업과 환경계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 지역환경변경의 구축이 바로 그러한 협력네트워크의 조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는 해외업체들의 기업 내 연계, 기업간 협력, 국제적 수준의 정부간 협력 등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환경관련 기술의 개발과 이전은 세계적 협력 네트워크의 주요 목표이다. 즉,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과 세계적인 기술의 전파는 세계적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목표이다. 국경을 넘어서 산업지역에서의 환경적 기준은 기업의 세계적 협력 네트워크, 공공기관, 자본/중앙 정부의 협력에 의해 세워질 수 있다. 산업지역의 환경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 연구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새로운 창구기술을 적용하고, 환경적인 기술의 개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적인 환경기술 개발 선도자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협력 연구와 국제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제비요 요시히로 (김근수 역), 1994. 지역의 국제화와 그 과정, 경기개발연구원.


Garnaut, Ross and Drysdale, Peter, eds., 1994, Asia Pacific Regionalism, Harper Educational Publ., Pymble, NSW, Australia.


Hayter, Roger, 1997, The Dynamics of Industrial Location, Chivchester, Wiley.


Park, Sam Ock, 1997, "Rethinking the Pacific Rim,"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TESG) Vol. 88(5)


Abstract

Globalization/Localization and Organization of Economic Space

Sam Ock Park*

Globalization of econom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rganization of global economic space.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s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major trends of the changes in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space in the Pacific rim, and the major processes of the changes. Intra-region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have increased considerably in the Pacific region with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during the last decade. Due to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of economy in the Pacific rim, some growth triangles have extended their agglomeration area beyond the national boundaries and several new industrial districts have developed. The reorganization of the economic space in the Pacific rim has been resulted from industrial restructuring of NIEs, spatial division of labor along the commodity chains, and the formation of industrial networks within the region. The 'cooperative network strategy' has been suggested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glocalization an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acific rim.

Key words: globalization, localization, organization of economic space, restructuring, cooperative network strategy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